

국가과학기술정보의 우산기능

# 도덕성 회복, 인간관계 재구축 절실



曹永華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요즘 필자는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정보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초대원장으로 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보의 우산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아마도 우산기능이라는 것은 핵우산이라는 말에서 나온 듯 한데, 어떠한 법적인 권한도 제대로 위임받은 바 없는 출연연구소가 정보관련 기관의 우산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새로운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는 때는 더욱 그러하다.

과거 70~80년대 공업입국을 다지는 사회에서의 경제의 기본적 메커니즘은 분업과 규모의 경제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이러한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던 사회였기에 많은 수의 대기업들이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보네트워크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는 현재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분업에서 통합으로 또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 그리고 연결의 경제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경제 메커니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하겠는데, 그 중 범위의 경제라는 것은 어느 제품의 생산과정 중에 다른 제품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꾸어 쓸 수 있는 공통생산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생산 요소의 사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화사회의 경제성 추구는 이러한 정보나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 정보의 노하우 중요

한편 연결의 경제성은 이와는 다르게 공통의 생산요소 뿐만 아니라 공유요소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의 주요 경제요소가 생산의 투입요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지식정보화사회의 중요 요소는 생산의 투입 및 산출 유통의 모든 면에 걸쳐 있다고 하겠다. 이는 과거의 생산의 효율화로 지금도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과 같은 상품의 다각화에 집중되어 있던 사고에서 생산주체와 조직의 상호연계에 의한 대응체제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조직체계를 연쇄형 조직 혹은 네트워크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얘기하는 우산기능이란 이러한 상호연계에 의한 대응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은 법적인 기능부여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엄밀히 말하면 조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과는 다른 별도의 틀로서 그 위상을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두가지 국면에 봉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식정보활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종래의 경제 밸런스가 붕괴되어 새로운 창조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정보가 보급되어 경제 밸런스를 회복하여 새로운 안정성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이 병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사회구도는 지식정보의 창출이라는 지금까지의 경제 밸런스를 창조적으로 파괴해 가는 불균형의 과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정보 유통이 그러한 불균형을 수정하는 균형화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산기능의 핵심이며, 새로운 통합정보기관의 기관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의 우산기능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는 명제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정보자본주의의 핵심적 작동요소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인프라’ 인 도덕성 회복,  
즉 사회적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고민해온 통합정보기관인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우산기능 정립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의 수반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권력적 조정의 성격보다는 협력적 조정이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결국 일체감, 공감대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우산기능이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동기부여의 메커니즘과 협력적 조정능력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능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정보유통의 우산기능의 개념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보화 정책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정보체제로 전환을**

첫째, 연결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유통의 분산·통합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보가 생성되거나 정보활동이 이루어진 곳에서의 생생한 현장정보가 시스템 통합기술 등으로 연계화 통합 정보서비스로 각 기관별·산업별로 추진해 온 분산적 독점적 정보자원 관리 체제에서 상호호환 및 공동활용 실현을 위한 통합정보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범위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 생성, 가공, 유통 등이 기존체계 및 업무활동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체제 구축 및 제도화를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렇게 이루어지는 정보 등이 잘 조직화되고 융합될 수 있는 룰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정보들이 단절없이 수요자에게 직접 서비스 및 연결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유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협력적 조정능력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술한 부분의 전제조건으로 정보의 입력, 가공, 유통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 및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보-유통망-시스템의 일체화(표준화, 호환성 포함)를 국가지식 정보 인프라구축의 기본 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기존의 사회적 연계와 생산-소비 절차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이를 제어할 사회적 능력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마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커다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 예컨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독점해야 하지만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즉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간에 서로 상충하는 딜레마에 빠지

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하여 경제학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 스미드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각 개인의 이기적인 성질을 제약한다고 간주하였다. 즉 스미드는 각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보여주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도덕체제를 떠맡겨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적 조정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기존 상품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별로 강조한 바가 없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인프라’ 인 도덕성의 회복 즉 사회적 인간관계의 재구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보자본주의의 핵심적 작동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고민인 통합정보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우산기능의 정립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의 재구축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꿈의 시대가 아닌가. 나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도 우산기능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㉞